

악몽(惡夢)을 통해 읽어보는 중국인들의 내면세계

— 중국 전통문학 연구를 위한 하나의 제안 —

강 종 임*

<目次>

- | | |
|---------------------|------------------|
| I. 서론 | III. 악몽을 극복하기 위한 |
| II. 악몽은 신이 내리는 재앙인가 | 방편들: 금기, 주술(呪術) |
| | IV. 결론 |

I. 서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교류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현재 두 나라 사이에는 찾아진 접촉만큼이나 모순과 충돌 또한 격증하는 추세이다. 두 나라의 만남은 곧 상이한 두 문화의 만남이다. 문화의 만남이란 바로 서로 다른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지닌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양국 사이의 모순이 중국에는 인간의 의식구조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당면 문제를 정치·외교적 문제로만 간주해왔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것은 문학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사람들의 몰이해로 야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화란 한 집단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관념과 의미의 체계, 생활양식을 지칭한다. 이것은 가치관과 사회제도 등의 총체로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결과물이다. 문학은 바로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산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인간의식의 내밀한 부분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강사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전통문학의 연구는 자구의 해석이나 문헌학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문학작품 속에 담긴 문화의 코드를 이해하려는 시도 또한 유의미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학에 대한 인식의 틀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한층 관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국문학 중에서도 악몽(惡夢)을 중심으로 고대 중국인의 내면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수면의 15% 내지 20%에 달하는 시간, 즉 일생의 12분의 1 내지 15분의 1 이상의 시간을 꿈꾸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꿈은 인간의 의식과 욕망, 치부마저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본문은 먼저 악몽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고, 이어서 악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금기와 주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궁극적 의의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II. 악몽은 신이 내리는 재앙인가

고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꿈은 이해하기 힘든 하나의 현상이었다. 특히 그 가운데 귀신 등이 나타나는 기분 나쁜 꿈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악몽에 놀라 잠에서 깰 뿐 아니라 섬뜩한 이미지로 인해 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은 일찍부터 악몽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실체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周禮·春官》에는 꿈을 그 내용과 특징에 따라 여섯 가지로 분류¹⁾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악몽과 관련된 것은 바로 악몽(噩夢)과 구몽(懼夢)이다. 정현(鄭玄)의 주석에 따르면, 악몽은 “‘악(噩)’자를 ‘경악’의 ‘악(愕)’자

1) 占夢掌其歲時，觀天地之會，變陰陽之氣。以日月星辰占六夢之吉凶。一曰正夢，二曰噩夢，三曰思夢，四曰寤夢，五曰喜夢，六曰懼夢。(《周禮注疏·春官》， 같은 책, 807-808쪽.)

로 써야 되고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는 꿈(愕當爲驚愕之愕, 謂驚愕而夢)”이다. 그리고 구몽은 “몹시 두려운 꿈(恐懼而夢)”이다. 이 두 가지 꿈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악몽(惡夢)인 것이다. 특히 악몽(噩夢)은 무서운 꿈을 꾸고 놀라는 것, 즉 가위눌림(몽엽: 夢魘)²⁾을 의미한다. 이 꿈은 그 이미지가 주는 자극이 매우 강렬하여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³⁾

이 가위눌림과 관련된 기록은 《山海經》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모양이 까마귀와 같은 새가 있는데, 머리가 세 개이고 꼬리가 여섯 개면서 잘 웃는다. 이름은 기여(鷓鴣)인데, 그 고기를 먹으면 가위눌리지 않고 또 흉한 일을 막을 수 있다.⁴⁾

서쪽으로 삼백오십 리를 가면 …… 염유어(冉遺魚)가 많이 있는데, 물고기의 몸과 뱀의 머리를 가졌으며 여섯 개의 발이 있다. 그 눈은 말의 귀처럼 생겼는데, 그것을 먹으면 가위에 눌리지 않고 흉한 일을 막을 수 있다.⁵⁾

먼저 이 인용문에 대한 주석을 살펴보면, 곽박(郭璞)은 불엽(不厭)을 “꿈에 가위눌리지 않는(不厭夢也)”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원가(袁珂)는 미(眊)를 “가위눌리다(魘夢)”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들은 모두 고대 중국인에게 있어서 가위눌림은 피하고 싶은 대상이었

- 2) ‘엽(魘)’은 ‘꿈을 꾸며 놀라는 것(寤驚也)’([漢]許慎, 撰, 《說文解字》, 岳麓書社, 2006, 189쪽)을 의미한다.
- 3) 유문영은 이러한 꿈의 원인으로 수면 시 외계로부터 받는 생리적 자극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팔다리에 가슴이 눌렸거나, 이불에 입과 코가 막혔을 때, 혹은 손과 발이 저려 활동할 수 없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극들이 가위눌림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꿈을 꾸기 전에 경험한 모종의 커다란 정신적 자극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劉文英, 《夢的迷信與夢的探索》(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 216쪽.)
- 4) 有鳥焉, 其狀如鳥, 三首六尾而善笑, 名曰鷓鴣, 服之使人不厭, 又可以禦凶. (袁珂校注, 《山海經·西山經》, 《山海經校注》本, 巴蜀書社, 1992, 67쪽.)
- 5) 又西三百五十里……是多冉遺之魚, 魚身蛇首六足, 其目如馬耳, 食之使人不眊, 可以禦凶. (《山海經·西山經》 같은 책, 73쪽.)

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음을 방증해 주고 있다.

현실 속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기여나 염유어를 잡아먹는다는 내용은 중국인의 신화적 사유체계를 보여준다. 우리는 설령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정말 악몽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악몽을 물리치고자 했던 중국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몽은 왜 꾸게 되는 것일까?

1) 악몽은 여러 신에 의해서 일어나며, 그 신들이 내리는 재앙이다.

다음의 고사는 이와 같은 고대인들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2세 황제는 꿈에 흰 호랑이가 마차를 끄는 왼쪽 말을 물어 죽이는 것을 보았다. 해몽가에게 물어보았더니 “경수의 수신이 재앙을 일으킨다.”는 점괘가 나왔다. 이에 이세는 망이궁(望夷宮)으로 가서 목욕제계를 하고 경수에 네 마리의 흰 말을 빠뜨려 제사지냈다.⁶⁾

여기에서 악몽은 신이 내리는 재앙으로 묘사되고 있다. 시황2세 호해는 그의 꿈에 보였던 불길한 징조를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의 부친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위의 예를 통해 우리는 고대인들이 악몽을 매우 두려워했으며, 악몽을 물리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진지했음을 알 수 있다.

2) 악몽은 신이 내리는 경고이지만 인간의 선(善)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漢代에는 천인감응설의 영향으로 역시 악몽을 하늘의 신이 일반 사람들에게 내리는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했다. 천인감응설에 따르면 하늘은 최고의 신이고 사람은 하늘로부터 생겨난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늘에 복종함으로써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6) 二世夢白虎齧其左驂馬，殺之，心不樂，怪問占夢。卜曰：“涇水爲祟。”二世乃齋望夷宮，欲祠涇，沈四白馬。(《史記·秦始皇本紀》，같은 책, 273-274쪽.)

그리고 왕의 통치 권력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징조를 통해 경고한다고 했다. 이 징조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재앙이란 하늘이 천자와 제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며, 악몽은 사대부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따라서 재앙은 선한 정치를 이기지 못하며, 악몽은 착한 행동을 이기지 못한다. 최선의 정치를 다하면 재앙도 복으로 바뀐다.⁷⁾

천인감응설의 신비주의적인 논리는 악몽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도 매우 적절히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향의 생각은 인간이 재앙이나 악몽을 통해 선하지 못함을 경고 받는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선한 정치와 행동이라는 도덕적인 가치를 통해 하늘의 경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왕부(王符)는 꿈을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열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가운데는 의학 이론에 근거해 분류한 꿈이 있는데 이른바 병몽(病夢)이다.

음에 속하는 병이 있으면 추운 꿈을 꾸게 되고, 양에 속하는 병이 있으면 뜨거운 꿈을 꾸게 된다. 안으로 병이 있으면 어지러운 꿈을 꾸게 되고, 밖으로 병이 있으면 흩어지는 꿈을 꾸게 된다. 백 가지 병으로 인한 꿈은 혹은 산란스럽기도 하다가 혹은 한 곳으로 모이기도 한다.⁸⁾

왕부는 이에 대해 《素問·脈要精微論》의 기재를 인용하여 음의 기운이 성하면 큰 물을 건너면서 무서워하는 꿈을 꾸게 되며, 양의 기운이 성하면 큰 불이 일어나는 꿈을 꾸다(陰盛則夢涉大水恐懼, 陽盛則夢大火燔灼)

7) 妖孽者, 天所以警天子諸侯也, 惡夢者, 所以警士大夫也. 故妖孽不勝善政, 惡夢不勝善行也. 至治之極, 禍反爲福. (《說苑·敬慎》 卷10.)

8) 陰病夢寒, 陽病夢熱, 內病夢亂, 外病夢發, 百病之夢, 或散或集. ([漢] 王符 撰, 《潛夫論·夢列》, 《諸子集成》本, 上海書店, 1986, 133쪽.)

는 주를 가한다. 그가 분류한 이 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몽의 일종이기도 하다. 악몽의 원인을 신이나 귀신의 존재가 아닌 음양이 균형을 잃어 건강하지 못한 인간의 신체에 두고 있다는 것은 의학적인 근거로 접근한 상당히 과학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중국 의학에 근거하면 양이 성하고 쇠하고 실하고 허한 것은 모두 양의 병에 속하고, 음이 성하고 쇠하고 실하고 허한 것은 모두 음의 병에 속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개괄하여 논할 수 없으나 왕부가 긍정했던 부분, 즉 병이 꿈으로 이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병은 서로 다른 꿈을 꾸게 한다는 관점은 원칙적으로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4) 악몽을 꾸 뒤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

왕부는 또한 “흉한 일을 꿈에 보고서 자신의 마음도 매우 걱정되고 두렵게 된다면 이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므로 정말로 나쁜 것이 된다”¹⁰⁾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악몽을 꾸고 나서의 마음가짐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즉, 악몽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는지에 상관없이 꿈을 꾸 사람의 정신과 심리상태가 악몽의 흉함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악몽이 하늘의 경고, 신이 내리는 재앙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미신적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인간 의식이 보다 더 합리적인 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악몽을 꾸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이다.

명대 진사원(陳士元)은 《夢占逸旨》에서 꿈이 발생하는 서로 다른 원인과 꿈과 그 조짐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꿈을 아홉 가지로 분류하였다.¹¹⁾ 그 가운데 “악귀나 요괴(厲妖)”의 꿈은 악귀나 요괴가 재앙을 내려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9) 劉文英, 《夢的迷信與夢的探索》(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 207-208쪽.
 10) 夢凶事而已意大恐懼憂悲, 發於心精, 卽眞惡意. (《潛夫論·夢列》, 같은 책, 134쪽.)
 11) 感變九端, 疇識其由然哉? 一曰氣盛, 二曰氣虛, 三曰邪寓, 四曰體滯, 五曰情溢, 六曰直葉, 七曰比象, 八曰反極, 九曰厲妖. ([明] 陳士元 撰, 《夢占逸旨》 卷2 <感變篇>, 《續修四庫全書》, 429쪽.)

비명횡사한 귀신은 남에게 의지하여 재앙을 내리며, 원한이 누적된 사람에게 귀신은 장차 보복을 한다. 그것을 꿈에 보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의심스럽고 정신이 혼란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후에 마귀는 그 틈을 타 요물들을 제멋대로 부린다. 그래서 재앙이 드러나고 복을 기원하기 어렵게 된다.¹²⁾

진사원은 해몽의 이론가였는데 그가 구분한 아홉 가지 꿈속에는 대부분 경험적 근거와 과학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 설명되어 있는 악귀나 요괴에 의한 꿈은 언뜻 보기에 신비적인 관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러나 악귀나 요괴가 꿈에 보이는 원인을 꿈을 꾸는 자의 심리와 정신의 상태에 두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꿈이 인간의 정념에서 비롯된다는 관념은 진사원이 처음 언급한 것이 아니다. “텅 빈 방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되어 만약 두려워하는 바가 있다면 꿈에 요괴가 그 몸을 짓누르며 우는 것이 보이게 된다”¹³⁾고 한 왕충(王充)의 언급도 역시 이처럼 꿈의 원인을 인간의 심리와 정신이라는 내재적인 요인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이야기는 이러한 악몽의 원인을 잘 설명해 준다.

진시황이 꿈에 해신과 싸웠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점몽가에게 물어보니 박사가 말하기를 “수신은 원래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대어나 교룡으로 징후를 삼습니다. 지금 황제께서 완전히 갖추어 제사를 지냈지만 이러한 악신(惡神)이 나타났으니 이 악신을 제거해야 선신(善神)이 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¹⁴⁾

12) 何謂厲妖，強死之鬼依人爲殃，聚怨之人鬼將有報，其見之夢寐者則由己之志慮疑猜神氣昏亂，然後鬼厲乘其類瑕斯其怪孽，故禍災立著福祉難祈也。(〔明〕陳士元撰，《夢占逸旨》卷2〈感變篇〉，《續修四庫全書》，430쪽.)

13) 獨臥空室之中，若有所畏懼，則夢見夫人據案其身哭矣。(〔漢〕王充撰，《論衡·訂鬼》，《諸子集成》本，上海書店，1986，219쪽.)

14) 始皇夢與海神戰。如人狀，問占夢，博士曰：“水神不可見，以大魚蛟龍爲候。今上禱祠備勤，而有此惡神，當除去，以善神可致。”(〔漢〕司馬遷撰，《史記·秦始皇本紀》，中華書局，1994，263쪽.)

위의 이야기는 《논형》, 《태평어람》 등에서 악몽과 관련된 기록에 인용되고 있어, 고대에 즐겨 회자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꿈을 꾸고 난 뒤 시황제는 그 “악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몽관이 알려준 대로 큰 물고기를 잡으려 힘든 여정을 한다. 사람들에게 대어를 잡는 공구를 휴대하게 하고 친히 화살을 들고 대어를 기다린다. 그러나 낭야(琅邪)에서부터 노성산(勞成山)에 이르도록 찾지 못하고, 지부산(之罘山)에 가서야 큰 물고기 한 마리를 활로 쏘아 잡게 된다. 진시황은 어렵게 악신을 잡았지만 결국 병을 얻게 되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 꿈은 사실 진시황의 심리 상태와 연관된다. 왜냐하면 선약을 구하던 진시황이 꿈을 꾸기 전에 신하로부터 어떤 보고를 들었고, 진시황은 그 보고의 내용과 흡사한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그 보고는 신하가 선약을 구하지 못한 문책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였다. 그 내용은 커다란 상어로 인해 봉래에 있는 선약을 구하기 힘들니,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 보고를 들은 후에 진시황이 유사한 내용의 꿈을 꾸는 것은 의심스러운 생각이 꿈을 일으킨다는 진사원이나 왕충의 언급과 완전히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는 물론이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악몽을 꾸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악몽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대의 중국인들이 악몽의 원인 중의 하나로 인간의 정신적·심리적인 원인에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악몽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중시하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게 한다. 즉, 고대 중국인들이 악몽을 신이 인간에게 내린 경고이고,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경고와 재앙은 결국 꿈을 꾸는 사람의 마음이 가져온 것이고, 악몽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선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강한 의지가 그 재앙을 피하게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식들은 악몽을 피하기 위한 금기 사항과 각종 방편들을 만들어 내었다.

III. 악몽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들 : 금기, 주술(呪術)

인간이 악몽을 꾸기 시작한 이래로 아마도 악몽을 물리치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모색되었을 것이다. 앞 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기여나 염유어의 식용을 비롯하여, 베개에 두고 잠을 자면 악몽을 꾸지 않게 한다는 사항¹⁵⁾, 그 잎을 품에 지니고 점을 치면 꿈의 길흉화복을 알 수 있게 한다는 몽초(夢草)¹⁶⁾, 몸에 많이 지니고 있으면 악몽을 피하게 한다는 단사(丹砂)¹⁷⁾ 등 여러 방편들이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편들은 신화적인 사유체계와 상상력에 그 주된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방편들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믿음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악몽을 극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주체적인 의지가 반영된 방편들과는 구별된다. 그렇다면 악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로 행한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 바로 금기와 주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금 기

《新集周公解夢書》¹⁸⁾에는 “악몽을 피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금기”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사당의 벽돌을 침대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요,

-
- 15) 凡人夜寢不寧者，取眞麝以絳紗袋盛置枕中，可無惡夢。《物類相感志》（[宋]邵雍 纂輯，〈夢林玄解〉卷28〈夢禳〉，〈續修四庫全書〉1064冊，313쪽。）
- 16) 融高西有夢草，似蒲，其莖似蒼，色紅。晝宿入地夜則出焉。懷其葉以占夢，則之吉凶禍福。《王子年拾遺記》（[宋]邵雍 纂輯，〈夢林玄解〉卷28〈夢禳〉，313쪽。）
- 17) 至今秘惜因解髻中一絳紗袋遺之，卽夕無夢，神魂安靜眞誥及他道書，多戴丹砂辟惡夢，信有之也。《類編》（[宋]邵雍 纂輯，〈夢林玄解〉卷28〈夢禳〉，312쪽。）
- 18) 《新集周公解夢書》：돈황유서 伯3908과 斯5900에서 김록한 판본이다. 伯3908은 완전한 판본으로서 모두 1권 2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침대를 지붕의 대들보와 마주보게 하는 것이 두 번째요,
 신목(神木)으로 침대를 만드는 것이 세 번째요,
 왼쪽으로 새끼를 꼬면서 꿰기풀을 어깨 위에다 묶는 것이 네 번째요,
 얼굴을 북쪽으로 향하도록 침대를 배치하는 것이 다섯 번째요,
 침대 아래에 송장의 뼈가 있는 것이 여섯 번째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시악함을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일곱 번째요,
 집에 흰 닭과 개를 기르는 것이 여덟 번째요,
 귀신을 모신 사당 근처에 거주하는 것이 아홉 번째요,
 육축이 죽었는데 그것을 먹는 것이 열 번째요,
 우물 안으로 머리를 넣고 물속에 비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열한 번째요,
 복숭아나무가 우물에 가까이 있는 것이 열두 번째요,
 노비의 시체 아래에 책을 놓아두는 것이 열세 번째요,
 낡은 가구를 수 년 동안 태우지 않는 것이 열네 번째요,
 방이나 멧돌을 신위나 불상 위에다 놓아두는 것이 열다섯 번째요,
 밥을 먹으면서 주문을 외거나 축원을 하지 않는 것이 열여섯 번째요,
 거북이나 뱀을 무고하게 죽이는 것이 열일곱 번째요,
 칼을 머리 위에다 두는 것이 열여덟 번째요,
 우물을 향해서 우물 난간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열아홉 번째요,
 흉한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스무 번째이다.
 차가운 곳에 자리를 깔고서 앉아있는 것은 상스럽지 못하다.
 부인이 악몽을 꾸었을 때에는 삼 일 동안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¹⁹⁾

위에 제시된 금기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신령에게 제의를 올리는 곳, 즉 사당이나 사원(廟)을 범해서는 안

19) 廟磚譚(塾)床脚是一, 臥床對屋梁是二, 神樹木造床是名(其)三, 左(作)繩縛蓐是其四, 面向北鋪床是五, 床下有枯骨是六, 爲人愛隨邪是七, 家養白鷄·犬是其八, 近神廟前後住是九, 六畜死自食是十, 井電(顛)相見是十一, 桃樹近井是十二, 奴婢死(尸)下妨(放)書是十三, 破家具多年不燒是十四, 確磗(礮)安神土是十五, 吃飯不呪愿「是」十六, 無故殺龜蛇蛇是十七. 將刀安電(顛)上是十八, 向井欄上坐是十九, 着凶人衣服是廿, 捕(鋪)地席冷地臥者不祥, 夫人惡夢三日不說爲珍寶.(劉文英, 《中國古代的夢書》, 中華書局, 1992, 50쪽.)

된다. 사당의 벽돌을 침대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것, 귀신을 모신 사당 근처에 거주하는 것, 방아나 맷돌을 신위나 불상 위에 놓아두는 것 등이다. 사당이나 사원은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며, 따라서 신성한 장소이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믿어질 뿐 아니라, 지상과 천상 사이의 교섭을 열어준다.²⁰⁾ 신성한 공간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그 두 공간이 지니는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라는 뚜렷한 구분은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사람들은 보통 사당, 사원과 같은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신들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신성한 곳에 경건한 마음을 지니고 들어가 제의나 경배를 올리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는 그 근처에 거주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왜냐하면 사당이나 사원 가까이에 거주한다는 것은 신의 노여움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신성함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절대적인 의지처인 신성한 장소가 숭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악몽이 신이나 귀신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성한 장소의 거룩함은 단지 건축물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구성하는 모든 것, 즉 흙, 벽돌, 나무 등 그것과 관련된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당이나 사원의 벽돌을 가져다 침대의 받침대로 쓴다는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에 다름 아니다. 그러한 행위뿐 아니라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는 인간의 마음이 신성함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아무 이유 없이 거북이나 뱀을 죽여서는 안 된다.

거북은 중국 고대로부터 숭배되던 토템 중의 하나이다. 《사기·귀책열전》에는 귀갑의 영험함에 대한 많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에는 영험한 거북이 길흉을 보여준다고 여겼으며 또한 천년 묵은 거북이 있는 곳에는 맹수들이나 해충, 독초도 살지 않으며, 명귀(名龜)를 얻으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

20) M.엘리아데, 이동하 역, 《聖과 俗—종교의 본질》(학민사, 1983), 29-52쪽.

래의 내용은 거북에 대한 영험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거북은…… 깊은 못에서 태어나서 황토에서 성장하여 하늘의 도를 알고 상고의 일에 밝습니다. 물 속에 살기를 3천 년! ……음양을 이해하고 형과 덕을 알아서 이해를 예견할 수 있고, 화복을 분명히 해줍니다. 이 거북으로 점을 치면 반드시 맞고,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왕께서 이것을 보물로 가지고 계시면 제후들이 모두 복종할 것입니다.²¹⁾

이러한 기록들은 거북이 중국의 아주 오랜 옛날부터 영물로서 숭배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하·은·주 시대에는 점을 칠 때 귀갑을 사용하였고, 북관은 항상 귀갑을 소중히 간직하였다. 또 영험한 거북의 귀갑으로 점을 칠수록 그 점괘가 정확하다고 여겼다. 그렇다면 귀갑을 얻기 위해서는 거북을 살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고대에 귀갑을 얻으려 할 때는 하늘이 내리신 물건에 대해 감사의 절을 올리고, 날을 가려 목욕재계한다. 가장 좋은 날을 택해 흰 평과 검은 양을 잡아 그 피를 거북에게 들이붓고, 제단 위에서 칼을 휘둘러 거북의 뚜껑을 벗겨 가졌다. 거북의 몸에는 굵힌 상처 하나 입히지 않고 벗겨내어 포와 술을 그 창자에 채워 경의를 표하였다. 그리고 점을 치고 난 귀갑은 나라의 귀한 보물로 간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왕과 백성의 도리는 다르다. 명군(明君)이나 성주(聖主)는 모두 거북을 죽여 사용하였지만 백성이 명귀를 얻으면 아무래도 죽이지 않는 편이 나왔다. 사사로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북을 잡거나 죽이는 일은 스스로에게 흉한 일을 가져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었다.

뱀 역시 중국 한족의 토착인 용의 원형으로서, 《산해경》에 등장하는 많은 수의 人首蛇神의 신에서도 그 신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뱀을 용으로 승천 시킨 것은 한족의 공로이며, 용은 바로 뱀의 몸에 각종 동물

21) 龜子……生於深淵，長於黃土。知天之道，明於上古。游三千歲……明於陰陽，審於刑德。先知利害，察於禍福。以言而當，以戰而勝，王能寶之，諸侯盡服。《史記·龜策列傳》(같은 책, 3230-3231쪽.)

의 우수한 특징과 각종 토템 부족의 우수한 문물을 한 몸에 붙여 거듭난 것이다.²²⁾ 어느 한 민족을 상징하고 그 민족이 숭배하는 토템은 의례적으로 경외되고 금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중국 민족에게 있어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북과 뱀을 무고하게 살생하는 것은 신성을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우물과 관련된 금기이다.

우물 안으로 머리를 넣고서 물 속에 비친 얼굴을 마주 보는 것, 복숭아 나무가 우물에 가까이 있는 것, 우물을 향해서 우물 난간 위에 앉아 있는 것 등이다. 《通幽記》에 고대 중국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 아래에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물을 엿보고 웃는 것은 흉하다.

당훤(唐暄)이라는 사람이 어린 여자 장씨(張氏)를 아내로 맞아 위남장(衛南莊)에서 머물렀다. 당훤이 일 때문에 낙양으로 들어가서는 여러 달 동안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밤에 잠을 자다 아내가 꽃을 사이에 두고 울다가 잠시 후에는 우물을 엿보며 웃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다음날 날이 밝아 짐을 보러가니 이렇게 말했다. “꽃을 사이에 두고 우는 것은 (꽃의) 얼굴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것이요, 우물을 엿보며 웃는 것은 황천길을 향하는 것이다.” 며칠을 머무르니 과연 흉한 소식이 전해졌다.²³⁾

우물의 물이 깊은 근원에서부터 생겨난다는 사실은 중국인에게는 죽음의 이미지와 연결되기도 한다. 즉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승은 땅 밑의 샘과 통한다고 여겨 저승을 황천(黃泉)이나 구천(九泉)이라 일컬었다. 우물

22) 김종미, <중국 용봉토템을 통한 고구려 벽화의 새로운 해석>, 영남중국어문학회 발표논문자료, 2006, 42쪽.

23) 窺井笑, 凶. 唐暄娶姑少女張氏, 留之衛南莊. 暄以事入洛. 累月不得歸. 夜夢妻隔花泣, 俄而窺井笑, 及寤. 心惡之. 明日就日者卜之. 曰, 隔花泣者, 顏隨風謝也. 窺井笑者, 喜向泉路也. 居數日, 果有凶信. ([宋] 邵雍 纂輯, 《夢林玄解》권15<第宅>, 79쪽.) 이 고사는 《太平廣記》卷332 《通幽記》에 <唐暄>이라는 편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사의 편목이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夢林玄解》에 인용된 고사를 사용하였다.

의 물은 깊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근원은 죽은 뒤 नी이 돌아가는 지하의 세계, 즉 구천과 맞닿아 있다고 여겨져 왔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초혼의 습속으로서 유족이 우물로 달려가서 망자의 이름을 부르는 사례는 우물이 죽어서 가는 저승 세계와 연결된 공간임을 강하게 시사해준다.²⁴⁾ 이처럼 우물이 저승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물을 들여다보거나 그 난간에 앉아있는 위험한 행동은 이승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승과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연상시킨다. 무병장수는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원한 염원일 터이니 이러한 행위들은 당연히 금기시되었을 것이다.

이밖에도 신목으로 침대를 만드는 것, 침대 아래에 송장의 뼈가 있는 것, 칼을 머리 위에다 두는 것, 얼굴을 북쪽으로 향하도록 침대를 배치하는 것, 낡은 가구를 수 년 동안 태우지 않는 것, 밥을 먹으면서 주문을 외거나 축원을 하지 않는 것, 흉한 사람의 옷을 입는 것 등등의 다양한 금기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일이 논의하지 않겠다. 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항들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꺼림칙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며, 그러한 느낌들은 실제로 악몽을 꾸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을 금기시하고, 사람들 스스로 금기의 속박을 받으며 최대한 경계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지녔을 것이다.

금기는 삼가고 피한다는 뜻으로 일상생활이나 종교적 의례에 있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접촉이나 언행을 제한하는 관습이다. 사람들은 금기와 관련하여 그것들이 인간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자연의 운행을 조절한다고 암암리에 믿고 있다. 즉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법칙의 효험으로 어떤 결과가 불가피하게 따른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쾌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이다. 주술이 ‘이러 저러한 일을 일으키기 위해 이런 일을 하라’는 점에서 적극적

24) 졸고, <점몽(占夢)을 통한 현실세계의 이해(2)— 점몽에서의 우물 이미지 수용을 중심으로>(《중국소설논총》제26집, 2007) 67쪽 참조.

이라면, 금기는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런 일을 하지 마라’라는 의미에서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고대 중국인들에게 악몽이 그토록 두렵고 피하고 싶었던 것인 만큼 그들에게 악몽을 꾸지 않기 위해 해서는 안 될 금기들이 있었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많은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금기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고대 중국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릇된 마음과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경계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간의 삶이 추구하는 선한 가치로 나아가기 위해 금기라는 굳은 의지로 자신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2. 주 술

그렇다면 악몽을 꾸지 않기 위해 삼가고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와 비교할 때, 악몽을 꾸지 않을 수 있고, 설사 꾸었다더라도 그 불길함을 떨쳐내기 위해 무엇인가를 행했다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주술의 대표적인 것으로 주문과 부적의 사용을 들 수 있다. 《新集周公解夢書》에는 계속해서 악몽을 떨쳐내기 위해 사용하는 부적과 주문을 언급하고 있다.

사람이 밤에 악몽을 꾸었을 경우, 아침에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그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서 먹으로 아래에 있는 부적을 써서 침대의 다리 아래에 놓아두고,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문을 윈다. “붉디 붉은 햇빛이여! 해는 동방에서 떠오르고, 이 부적은 악몽을 끊어줄 것이며, 상서롭지 못한 것들을 없애줄 것이다. 이를 세 번 읽으면 온갖 귀신들이 법령을 받은 듯 재빨리 숨어 없어질 것이다. 악몽! 너의 성은 운이요, 이름은 행귀이며, 나쁜 생각! 너의 성은 가요, 이름은 자직이며, 또 다른 성은 자요, 자는 세호이니, 나는 너의

25) J.G.프레이저, 이용대 역, 《황금가지》(한겨레신문사, 2003), 90쪽 참조.

이름도 알고 너의 자도 알고 있다. 나에게서 천리 바깥으로 법령을 받은
 듯 어서 빨리 떨어지거라! 칙.”²⁶⁾

위의 인용문에서는 부적의 효능과 주문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우선 주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부적을 사용할 때에는 흔히 주문을 외는 방법이 병행된다. 주문은 고대의 도사나 무당 등이 법술을 행할 때 사용하던 일종의 구결(口訣)이다. 이는 부적을 사용하여 물리치고자 하는 대상, 즉 악몽을 일으키게 하는 악귀들을 향해 음성으로서 주술적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대 중국에서 말이 음성으로 외개할 때 주술적인 작용이 함께 발동된다는 신화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²⁷⁾과 무관하지 않다. “법령을 받은 듯 빨리 사라지거라(急急如律令)”이라는 주문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구절로 속히 그 효력을 얻기 위함이고²⁸⁾, 천자가 내리는 조서를 의미하는 칙(勅)을 덧붙이는 것은 그것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을 사용하고 주문을 외을 때에는 경건한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너의 이름도 알고 너의 자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왜 성과 이름까지 대면서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대상에 대한 지식이 힘의 권력으로 연결된다는 논리²⁹⁾를 연

26) 凡人夜得惡夢，早起且莫向人說，虔敬其心，以墨書此符安臥床脚下，勿令人知。乃可咒曰：赤赤陽陽，日出東方，此符斷夢，辟除不祥。讀之三遍，百鬼潛藏，急急如律令。夫惡夢姓云名行鬼，聖想姓賈名自直。又姓子而，字世瓠，吾知汝名識汝字。遠吾千里，急急如律令，勅。(劉文英, 《中國古代的夢書》，50-51쪽.)

27) 김근, 《한자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민음사, 1999), 30쪽.

28) 김민기, <부작미술의 역사와 사상>, 《한국민속문화의 탐구》(국립민속박물관, 1996), 73-74쪽.

29) 푸코는 권력과 지식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권력은 필연적으로 지식(지식의 기구)을 조직하고 유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권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사람들이 권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권력이 단순히 금지의 기능으로 다가오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사물을 관통하고, 생산하며, 쾌락을 유도하고, 지식을 형성하며, 담화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인간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지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주술을 행하는 자가 악귀를 향해 악귀가 날날이 파악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은 그 둘의 권력 구조에서 주술을 행하는 자가 우위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술자가 악귀를 지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악귀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인간이 주문으로 악귀를 물리칠 수 있었는지는 의심할 만하다. 그러나 사람이 악몽을 꾸었을 때, 악몽이 가져오는 불길함과 악귀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무엇인가를 했어야 했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음성이 주술적인 작용을 갖는다고 믿었음에라.

주문을 외우는 것은 원시종교에서부터 보편 종교에 이르는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주문 가운데는 그 글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글귀의 뜻은 알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외우는 소리만으로 呪力을 인정하는 것도 있다. 특히 악몽과 관련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은 일종의 진몽법(鎮夢法)으로서 중국 뿐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흔히 사용되던 방법이었다. 예컨대, 악몽을 꾸었을 때 입에 맑은 물을 머금고 동쪽을 향해 뱉으며 주문을 외운다든지, 부적을 써서 몸에 지니고 물을 입에 머금고 손가락으로 이(齒)를 두드린 다음, 일곱 번재에 동쪽을 향해 물을 뱉으면서 주문을 외운다³⁰⁾는 등의 방법이 있었다.

이처럼 주문의 효능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유양잡조》에 특히 악몽을 꾸지 않게 하기 위한 주문의 구체적인 효능을 말한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 본다.

당나라 옹익견이 말했다.

또한 역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 - 즉 권력이 생산해 낸 진실이 권력의 효과를 유도하고 확산시킨다고 주장하였다. <M.푸코, 홍성민 역, 《권력과 지식》(나남, 1991), 111-167쪽.>

30) 무라야마 지준, 김희경 역, 《조선의 점복과 예언》(동문선, 2005), 238-239쪽.

“밤을 주관하는 신주(神呪: 呪文)”을 외면 공덕이 쌓이는데, 밤에 길을 갈 때나 잠을 잘 때 두려움을 없애고 악몽을 꾸지 않게 해준다. 그 주문은 ‘파산과연저(婆珊婆演底)’이다.³¹⁾

위에 예문에서의 ‘공덕이 쌓인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아마도 주문은 어지러운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 역할을 해주었을 것이다. 그것은 곧 악귀에 대처할 수 있는 의지를 기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문을 외우는 것은 일종의 자기 암시였을 가능성도 보인다.

계속해서 부적에 대해 살펴보자. 위의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적은 악몽을 끊어주고, 상스럽지 못한 것들을 없애준다고 여겨졌다. 《몽림현해》에는 악몽을 피하기 위한 10가지의 부적과 일자에 따른 악몽에 대한 12가지의 부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기와 관련해 불길한 꿈을 피하기 위한 부적
2. 산천과 도로와 관련된 불길한 꿈을 피하기 위한 부적
3. 사람과 귀신, 신과 관련된 불길한 꿈을 피하기 위한 부적
4. 복식과 신체 용모와 관련된 불길한 꿈을 피하기 위한 부적
5. 거주하는 곳, 사용하는 기물과 관련된 불길한 꿈을 피하기 위한 부적
6. 살인, 싸움, 형벌에 관련된 불길한 꿈을 피하기 위한 부적
7. 연회나 죽음, 상조와 관련된 불길한 꿈을 피하기 위한 부적
8. 꽃, 과실, 곡식과 관련된 불길한 꿈을 피하기 위한 부적
9. 출산, 회임, 재물과 관련된 불길한 꿈을 피하기 위한 부적
10. 물, 불, 도적과 관련된 불길한 꿈을 피하기 위한 부적³²⁾

31) 唐雍益堅云: “主夜神呪, 持之有功德, 夜行及寐, 可已恐怖·惡夢. 呪曰: ‘婆珊婆演底.’” 《酉陽雜俎》(李昉撰, 《太平廣記》卷283, 中華書局, 1995, 2261쪽.)

32) 厭天日風雨不祥之夢, 厭山川橋路不祥之夢, 厭人鬼仙佛不祥之夢, 厭服飾身貌不祥之夢, 厭屋宅器皿不祥之夢, 厭殺鬪刑獄不祥之夢, 厭宴樂死喪不祥之夢, 厭花果穀菜不祥之夢, 厭產孕財帛不祥之夢, 厭水火盜賊不祥之夢. ([宋] 邵雍 纂輯, 《夢林玄解》卷28 「夢禳」, 304-306쪽.)

자일에 꾸는 악몽: 검은 색으로 써서 문에 붙이고 또 한 번 써서 몸에 지닌다.

축일에 꾸는 악몽: 검은 색으로 한 번 써서 몸에 지닌다.

인일에 꾸는 악몽: 검은 색으로 한 번 써서 남자는 몸에 지니고, 여자는 침대에 붙인다.

묘일에 꾸는 악몽: 붉은 색으로 한 번 써서 문에 붙인다.

진일에 꾸는 악몽: 검은 색으로 한 번 써서 문 안에 붙인다.

사일에 꾸는 악몽: 검은 색으로 한 번 써서 벽에 붙인다.

오일에 꾸는 악몽: 검은 색으로 한 번 써서 남쪽 벽에 붙인다.

미일에 꾸는 악몽: 검은 색으로 두 번 써서 몸에 지닌다.

신일에 꾸는 악몽: 붉은 색으로 한 번 써서 벽에 붙이되,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붙인다.

유일에 꾸는 악몽: 검은 색으로 한 번 써서 몸에 지닌다.

술일에 꾸는 악몽: 검은 색으로 한 번 써서 서쪽 벽에 붙인다.

해일에 꾸는 악몽: 붉은 색으로 한 번 써서 부엌 안에 놓는다.³³⁾

부적³⁴⁾은 일종의 상징성을 지닌 부호이며, 복을 빌고 재앙을 쫓기 위해 만들어진 인류의 문화적 산물이다. 부적이 사악함을 쫓고 병을 치유한다고 믿는 관습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효한 듯하다.

부(符)는 애초에 《설문》의 기록처럼 “증거”³⁵⁾를 의미하였다. 즉 제왕이 하달하는 명령에 대한 증거로서 무한한 권위를 갖게 된다. 후에 도교의 방사들은 그것이 천신이 보여주는 증거라고 여겼으며, 혹은 그림으로 혹은 전문(篆文)으로 하늘의 구름 사이에 나타나고, 그것을 기록하여 신부

33) 子日黑書貼門又戴一道, 丑日黑書一道戴之, 寅日黑書一道男戴女貼床, 卯日丹書一道貼門, 辰日黑書一道貼門內, 巳日黑書一道貼壁, 午日黑書一道貼南壁, 未日黑書二道戴之, 申日丹書貼壁男左女右, 酉日黑書一道戴之, 戌日黑書一道貼西壁, 亥日丹書一道安竈中. ([宋] 邵雍 纂輯, 《夢林玄解》 卷28 夢禳, 307-309쪽.)

34) 부에는 나뭇잎, 죽순, 나무껍질, 가죽, 대 축, 나무 축, 형걸, 종이 등 평면 재료에 그리거나 찍은 부적(符籙)과 돌, 뼈, 조개, 이빨, 발톱, 뿔, 털, 깃털, 씨앗, 귀금속 등을 그대로 또는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입체물을 가리키는 부작(符作)이 있다. (김민기, <부작미술의 역사와 사상>, 73-74쪽.)

35) 符, 信也. (《說文解字》, 같은 책, 96쪽.)

(神符)라고 하였다.³⁶⁾ 《후한서·비장방전》에는 “또 부 하나를 만들어 말했다. 이것으로 지상의 귀신을 주관한다. ……여러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백귀를 물리칠 수 있으며 토지신을 몰아쳐 부릴 수 있다”³⁷⁾라고 하여 고대인의 인식 속에서 부적은 신의 권위와 신의 뜻을 지니며, 귀신을 부리고 사악함을 불리치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적을 사용하면 악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길하게 된다는 것인데 위에서 소개한 부적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인간이 극복하고자 했던 악몽이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적을 사용한다는 것은 신의 힘을 빌어서 흉함을 물리치고자 한 것이지만, 그 바람의 토대는 현실적인 삶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경 생활에 필수적인 일기를 비롯하여 자연환경이나 재해, 사람이 삶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人事 등 망라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대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현실 속에서의 안녕과 무사이며, 이러한 것들이 곧 그들의 현실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임을 엿볼 수 있다.

2) 악몽을 꾸는 날을 12干支³⁸⁾로 나누고, 그 날에 해당되는 악몽을 물리치고자 했음은 고대 중국인의 역법으로 보면 일년 내내 악몽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이 그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어느 순간에 꾸어지는 악몽이라도 모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인간이 자신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방지하고자 했던 바람을 반영하고 있다. 실로 적극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3) 부적을 붙이는 위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 공간은 문, 벽, 침대, 몸, 부엌 등 악몽을 가져오는 악귀가 인간

36) 李養正 著, 《道教概說》(中華書局, 1989), 289쪽.

37) 又爲作一符曰, “以此主地上鬼神”……遂能醫療衆病, 鞭笞百鬼, 及驅使社公. ([宋] 范曄 撰, 《後漢書·費長房傳》, 中華書局, 1993, 2744쪽.)

38) 단지 12간지로만 날짜를 기록한 것은 漢·魏 시기에 출현했고, 그것을 “十二支日”이라고 일컫는다. (姚偉鈞 著, 《神秘的占夢》(廣西人民出版社, 1991), 56쪽.)

이 살고 있는 세속적인 공간에 이를 수 있는 경로로써 여기에는 그것을 막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공간은 또한 사람의 눈길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한다. 사람의 눈길이 쉽게 간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부적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고 행동을 삼갈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 부적이 효험을 나타내려면 마음가짐이 전제되어야 한다.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려는 간절한 바람 뒤에는 신의 은혜를 입기 위한 적덕(積德)과 경건한 성실성이 요구된다.³⁹⁾ 부적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답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부적을 제작해 주는 사람은 부적을 쓰는 사람과 지니는 사람이 그 범규를 어기는 데에서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여기며, 그 범칙대로만 잘 만들어서 깊은 신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지닌다면 거의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장담한다.⁴⁰⁾ 그렇다면 부적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주술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믿음보다도, 주술적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고 성실한 마음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적의 의의는 인간의 삶의 태도와 직결된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는 인간이 세계 속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조화로울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악몽과 관련된 기록과 그 속에 담긴 중국인들의 사고와 삶의 기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물론 첨단과학의 물질적인 이기를 누리며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39) 김민기, <부작미술의 역사와 사상>, 74쪽.

40) 한정섭, <현대사회에 있어서 부적에 대한 인식>(《한국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1996), 104쪽.

고대인들의 금기와 주술, 부적은 일종의 미신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의 삶과 더불어 전해져 왔다. 이 사실은 단순히 미신이라고 무시해 버릴 수 없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은 악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현상 너머의 원인, 즉 인간의 이기심과 사사로운 욕망을 발견해 내고 금기나 주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통제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욕망을 제어하고 전체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상생의 삶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추구하고자 했던 인간성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을 진정한 인문화라고 보아야 하지 아니겠는가.

기존의 중국 고대 꿈 문학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결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중국 전통문학에 대한 편견과 오만을 마음 한 편으로 밀쳐놓고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지혜로움을 가슴으로 끌어안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상 이면을 통찰하고 그 근원에서부터 욕망을 통제하고 제어하고자 했던 고대 중국인들의 지혜가 시사하는 바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금을 막론하고 현실 속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사라진 적은 없었으며, 인간의 욕망은 굶주린 아귀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고통과 파멸의 나락으로 내몰기 때문이다.

현상 이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추세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며 끊임없이 욕망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바로 한 세대 한 세대를 거쳐 전해진 유구한 전통문화, 전통문학 속의 합리적 요소에 대해 우리 스스로 시선을 거두어들이는 결과가 아닌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漢] 王充 撰, 《論衡》, 《諸子集成》本, 上海書店, 1986.

- [宋]李昉 撰, 《太平御覽》, 中華書局, 1985.
- [唐] 賈公彥 撰, 《周禮注疏·》, 《十三經注疏》本, 中華書局, 1979.
- [漢] 許慎 撰, 《說文解字》, 岳麓書社, 2006.
- 袁珂 校注, 《山海經校注》, 巴蜀書社, 1992.
- [漢] 司馬遷 撰, 《史記》, 中華書局, 1994.
- [漢] 王符 撰, 《潛夫論》, 《諸子集成》本, 上海書店, 1986.
- [明] 陳士元 撰, 《夢占逸旨》, 《續修四庫全書》
- [宋] 邵雍 纂輯, 《夢林玄解》, 《續修四庫全書》1064冊, 1995.
- [宋] 范曄 撰, 《後漢書》, 中華書局, 1993.
- [晉]干寶 撰, 《搜神記》, 里仁書局, 1982
- [宋]李昉 撰, 《太平廣記》, 中華書局, 1995.
- [漢] 司馬遷 撰, 《史記》, 中華書局, 1994.
- 李孝定 編述, 《甲骨文字集釋》,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65.
- 劉文英, 《夢的迷信與夢的探索》,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
- 劉文英, 《中國古代的夢書》, 中華書局, 1992.
- 李養正, 《道教概說》, 中華書局, 1989.
- 姚偉鈞, 《神秘的占夢》, 廣西人民出版社, 1991.
- M.엘리아데, 이동하 역, 《聖과 俗——종교의 본질》, 학민사, 1983.
- J.G.프레이저, 이용대 역, 《황금가지》, 한겨레신문사, 2003.
- 김근, 《한자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민음사, 1999.
- M.푸코, 홍성민 역, 《권력과 지식》, 나남, 1991.
- 무라야마 지준, 김희경 역, 《조선의 점복과 예언》, 동문선, 2005.
- 김종미, <중국 용봉토템을 통한 고구려 벽화의 새로운 해석>, 영남중국어
 문학회 발표논문자료, 2006.
- 줄고, <점몽(占夢)을 통한 현실세계의 이해(2)— 점몽에서의 우물 이미지
 수용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26집, 2007.
- 김민기, <부작미술의 역사와 사상>, 《한국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
 박물관, 1996.

한정섭, <현대 사회에 있어서 부적에 대한 인식>, 《한국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1996.

<中文提要>

本文主要考察了有關惡夢的記錄和從中包含的中國人的生活 and 思想基礎。當然對享受着物資文明和尖端科學成果的現代人來說古人的禁忌、咒術、符籙等這些只不過是一種迷信。但是這些都是伴隨着中國人的生活而流傳至今。這一點充分證明這不僅是一種迷信，也許它有自己合理的一面。古人不怕做惡夢。

反而，古人透過現象發現個人的欲望和自私的一面，從而想方設法用禁忌或咒術來控制這種現象。這就跟抑制個人的欲望而達到整體統一的相生的人生觀沒有什麼區別。我們可以從中窺視拋棄小我追求大我的人類的偉大一面，而且是否應該把它看成真正的人文化。

주제어 : 惡夢, 禁忌, 咒術, 符籙